



‘함께 손을 잡아요’를 읽고

더불어 사는 세상

숲 속에 키를 키우는 데만 신경 쓰는 잘난 척하는 전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나는 전나무가 왜 뿌리는 튼튼하게 안 하고 키만 키우는지 잘 모르겠다. 우선 뿌리를 튼튼하게 한 다음 키를 키워도 될 텐데 전나무는 참 바보 같다. 키가 비스듬해야 힘이 더 아름다울 텐데 왜 자기 키만 크길 바랄까?

할아버지 소나무가 친구들과 함께 숲을 이루며 뿌리를 튼튼하게 하라고 충고했지만 전나무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친구들과 함께 전나무가 서로 도우며 숲을 이루면 비록 돋보이지 않더라도 친구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였다. 전나무는 서로 도우며 나누는 즐거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어느 날 숲에 큰비가 내리자 다른 나무들은 서로서 뿌리를 잡고 흠이 빗물에 휩쓸려 때내려 가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았다. 그러나 전나무는 숲 속에서 자기 혼자 멋지게 서 있을 거라며 절대로 다른 나무의 뿌리를 잡지 않았다.

나는 이 장면을 읽고 전나무가 마음을 고치지 않아 너무 미워졌다.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는 전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모두 서 있는 숲에서 자기 혼자만 쓰러져

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 전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함께 뿌리를 꼭 잡고 버텨주었다면 전나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반 친구 중에도 전나무 같은 친구 몇 명이 있다. 수업 시간에 모둠별로 활동할 때 서로 돕기 않고 자기 혼자만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다. 모둠 활동은 나 혼자만 아닌 모두의 합동 작품이어야 하는데 자기만 뽐내고 싶어한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다.

서로 도울 때 진짜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 책을 읽고 서로 돕는 마음이 생길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난 그 후 친구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해진다. 비가 그친 뒤 숲 속의 나무들은 모두 씩씩하게 서 있었지만 전나무만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전나무의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에 마음이 아팠다.

그런 행동은 남들에게도 도움을 못 줄 뿐 아니라 결국엔 자기 자신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쓰러진 전나무는 다른 친구들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만 잘났다고 서 있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다른 나무들의 뿌리를 잡고



조현지 (학생명예기자, 내춘초 3년)

자기 몸을 일으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와 우리 반 친구들이 이 전나무처럼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올해 3월 나도 반장이 되기 위해 내 자랑만 늘어놓았던 생각이 난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로는 그런 행동이 조금씩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요즘 나는 쉬는 시간에 미처 교과서를 펴놓지 못한 친구들의 교과서를 펴주며 우리 모둠원 친구들이 모두 다같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그런 내 행동은 내 친구들이 수업시간에 허둥대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내 행동에 친구들이 고마운 눈빛을 보내 줄 때면 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지곤 한다. 또한 그런 눈빛들은 나를 더욱 더 이해심 많고 남도 배려할 줄 아는 어린이로 만들어 갈 것이다.

포천신문사 사장님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기초에 사장님께 장학금을 받은 영중중학교 3학년 재학생인 임혜민,한기형,신민섭,이샘물,김성운입니다.

처음 장학금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생각없이 기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희에게 장학금을 주신 이유가 더욱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다가가 부담도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장학금을 주신 사장님과 교장선생님께 은혜를 갚으려면 각자가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성적으로 학교를 빛내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니 이제부터는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서 사장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학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맺겠습니다.

2005년6월23일 목요일

영중중학교 3학년 임혜민 외 4명 올림

특별기고

문화 토테미즘 시대에 지역문화산업의 의미에 대한 성찰



공명수 (대진대 영어문화과 교수)

문화는 후기산업사회의 경제체제의 핵심요소이다. 문화적 요소들이 상품의 생산에서 교환과 소비까지 활용영역을 활발하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는 이미 산업화된 지 오래 이고, 이제는 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과 풍습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문과 풍경도 상품으로 전이되는 실정이다. 이

슬어 있다. 부족민들이 토템의 차이에서 저마다 차별성과 동질성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부족민들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토템을 통해서 한 집단에 묶여 있는 소속감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집단의 차별화 전략에 내포된 심리 속에는 유대적 못지않게 집단으로부터의 소외나 방출에 대한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기에 부족민들은 토템을 통해 강하게 결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토템화 현상은 의식의 획일화이자 집단 이데올로기화이지만, 이는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지배적인 관념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근원적 속성과의 연관성 여하에 따라 신화로 발전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소쉬르의 기호학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 소쉬르는 기표와 기의 관계를 자의적

타의 이미지는 다른 대중스타와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의적인 기호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대중스타의 이미지의 차이가 상품 속으로 전달되어 상품의 차별화를 가져오고, 이는 곧바로 상품의 구매로 이어지게 된다. 가령 배종준과 박중훈의 이미지의 차이가 하이트 맥주와 라거 맥주의 차별화로 이어져 보이지 않게 하이트파와 라거파와 같은 집단의식을 묘하게 형성하게 하여 맥주의 소비를 전략화 한 예는 우리는 과거에 경험한 바 있다. 지금 우리는 매스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의 차별화 전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소비의 광장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문화 토테미즘도 마찬가지이다. 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는 다른 지역의 문화와의 차이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포천의 지배적 이미지를 함축하는 문화토테미즘 창조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유한 문화 통해 가능하다”

들이 상품의 이미지나 스타일 등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상품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산업자원이 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의 산업전략화는 한 순간에 소멸하는 피피성을 지니는 반면, 지역의 문화적 요소는 그곳의 정서적 뿌리인 정체성과 연관되어 복합적인 이미지를 발산하므로 영속성을 갖는 산업전략원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지금은 문화산업의 의미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는 다차원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화는 묘하게도 집단의 묶음을 만들어 내는 결속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 토테미즘 현상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원시사회들이 자연을 이용해 집단 간의 차이를 표현해 내는 것에 각별히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문화 토테미즘의 원리를 유추해 내었다. 어떤 부족이 호랑이를, 어떤 부족이 독수리를, 그리고 어떤 부족이 느리나무를 자신들의 우상의 상징물로 삼고 있는 주된 이유에는 토템을 통해 집단을 이탈하게 하지 않고 단합시켜 하나로 묶어 내려는 의도가

으로 해석한다. 가령 교통신호등의 경우 기표(signifier)인 빨간색과 기의(signified)인 정지 간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빨간색이 반드시 ‘정지’를, 파란색이 ‘출발’을 의미할 근거가 없다. 빨간색을 ‘출발’, 반대로 파란색을 ‘정지’라고 처음에 정했다면 이 약속 기호는 그렇게 통용되었을 것이다. 일종의 교통법규로서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기표는 기의와 연결된다.

소와 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소와 개의 이미지는 처음에 ‘네 다리 달린 일하는 짐승’과 ‘집을 지키는 짐승’을 의미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 기표와 기의 간의 관계는 순전히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표로서의 소는 다른 기표로서의 말 혹은 호랑이와의 ‘차별성’ 때문에 우리 머릿속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의미란 기표와 기의의 ‘일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호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쉬르의 기호학은 문화산업 전략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가 대중문화 속에서 접하는 대중스

터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과 풍습뿐만 아니라 인물과 풍경이 다른 지역의 그것들과의 차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을 부각시키게 되면 이들은 얼마든지 보편화된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여 포천의 지배적 이미지를 함축하는 문화 토테미즘을 창조할 수 있다. 이는 오로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고유한 문화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역사 속에 묻혀 주변화 되고 배제되어 온 신소설의 창시자이자 선각자로서의 동농 이해조의 새로운 조명은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물론 이 경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앞으로 제2, 제3의 이해조 조명과 같은 문화적 자산에 대한 탐색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포천은 문화를 자본화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동시에 지역의 정체성도 일깨우는 일석이조의 실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는 포천에 자리 잡고 있는 문화적 혼돈을 정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김순진의 연재 수필

아빠 어렸을 적에(31)

복숭아 고르기

우리들은 마치 절신이 들린 사람처럼 마구 먹어댔습니다. 이럴 때 ‘웬 떡이냐’라고 하던가요? 양손에 한 개씩 들고 번갈아가며 먹는 아이, 배어 물다 복숭아 조각이 옆으로 튀며 먹는 아이, 칼로 사과를 깎듯 빙글 빙글 돌려가며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체면이 밥 먹어 주냐 라는 말이 있듯이 행동은 아귀같이 먹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스무 개쯤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우리들은 겨우 대여섯 개를 먹어 치우고 “아이고 배불러”를 외치며 복숭아 더미에 기대고 누웠습니다. 잠시 후, 아저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실컷들 먹었어?” 우리들은 한껏 생기된 목소리로 우렁차게 대답하였습니다. “네!”

“그래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간다.”

아저씨는 씨리나무로 엮은 삼태기와 광주리, 대나무로 만든 큰 대리키, 빨간 고무다래, 나무로 깎은 함지박 등 집에 있는 담을 그릇을 모두 동원하여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벌레 먹은 복숭아, 상처 난 복숭아, 붉은 복숭아를 보여서 이런 것을 골라 내 삼태기에 담고, 좋은 것은 각자에 준 광주리며 대리키에 담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배가 부르고 익숙하지 않기에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게다가 복숭아털이 날려 몸은 뽀시뽀시 따갑고 가려웠기에 마치 용이라도 읊은 사람처럼 온 몸을 마구 긁어 댔습니다. 견디기가 어려운 우리들은 또다시 사정하였습니다.

“아저씨, 집에 좀 보내 주세요? 네? 가려워 죽겠다 말이에요.”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너 누구 아들이야? 나 애비 이름이 뭐야?”

“김 가짜 면짜요!” “오라, 너 기면이 아들이로구나. 너, 너 아범한테 이르러 작살나게 매 맛을 거다. 네 애비랑 나랑 감정이야 이눔아! 니덜 또 한 번만 복숭아 따먹다 걸리면 그랜 애비한테도 이르고 학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를 줄 알아!”

“네....” 우리들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가도 좋다!”

아저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좋아하였습니다.

“자, 이젠 아저씨가 주는 거니까 가지고 가서 식구들하구 나누어 먹어!”

아저씨는 좀 상한 것과 벌레 먹은 것을 칼로 발려 먹으라시며 몇 개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가져온 물건들을 쟁쟁어둠을 뚫고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막걸리 지점 겸 가게집에서는 불빛이 흘러 나왔습니다.



김순진 시인, 소설가, 수필가 http://cafe.naver.com/yob51 011-9123-4422

동네로 돌아온 우리들은 그대도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구멍가게에서 흘러나오는 30초 짜리 백열등의 어슬푸레한 불빛 아래서 낮에 잡은 물고기를 나누었습니다. “짱, 썸, 뽀! 짱, 썸, 뽀!” 우리들은 가위, 바위, 보를 하며 물고기를 크거나 자기가 갖고 싶은 물고기를 고르는 순서로 공평하게 물고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에 가져가야 상해서 먹지도 못하고 닭이나 졸 물고기들... (계속)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 고속 관광’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효도관광 -수학여행 -신혼여행 -문화재답사
대진 자동차학원, 금마 고속관광, 가산삼거리, 송우, 내촌, 가구단지